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고용노동부·강남구와 함께 혹서기 대비 배달파트너 생수 지원

2024. 8. 6.



- 강남 지역 배달파트너 쉼터에 비치할 생수, 이온음료 등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
- 전국 쉼터에 생수 30만병 지원, 안전운전 가이드 배포 등 배달파트너 안전운행 위해 적극 지원

2024. 08. 06.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고용노동부·강남구와 손잡고 '생수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혹서기 대비 배달파트너 지원에 나섰다.

쿠팡이츠서비스는 혹서기 배달파트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강남구 소재 쉼터에 비치할 생수와 이온음료, 포도당 캔디 등을 지원한다. 배달파트너 쉼터는 배달파트너라면 제한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배달파트너 쉼터 지원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한 생수 쿠폰도 지급하고 있다. 생수 쿠폰 이벤트는 이달까지 진행되며 배달이력 조건을 충족하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준비 물량 소진시까지 제공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강남구는 물론 전국 55여개 배달파트너 센터에 생수 30만병 대규모 지원 등 여름철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가이드를 제작해 필수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무더위 속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